

여수 엑스포 주제, 특색이 없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선정된 박람회 주제가 개최 타당성이나 한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선정한 주제가 일반적이고 불분명한 데다 경쟁 상대국인 모로코에 비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유치 가능성이 높기 위해 현 주제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2012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한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와 숨 쉬는 연안-풍부한 자원 보존과 미래지향적 활동'(The Living Ocean and Coast: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너무 일반적인 데다 분명하지도 않아 이 주제만으로는 '한국 여수'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 어려울

'살아있는 바다와 숨 쉬는 연안'...일반적이고 모호 아랍문명 특성 부각 모로코와 대조...변경론 확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변경론이 일고 있다.

여수박람회 주제 교체론은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주제 변경을 공식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요구해왔었다.

전남대 이정록(지리학과) 교수는 지난 23일자 광주일보 '월요광장' 칼럼을 통해 "여수의 강력한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헤르는 '더욱

통합된 세계를 위해 문화를 연결하는 세계통로'(Routes of the world, Cultures connecting. For a more United World)라는 분명한 주제를 제시했다"며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며,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연결하는 통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수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주장했다.

곽영훈 전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역시

2012 여수박람회 주제와 관련 "이번 박람회 주제의 모호함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던 문제"라며 "더욱 분명하고, 다른 경쟁 상대국과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을 통해 주제를 선정한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와 전남도는 '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불필요하며, 이제 와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문 중앙유치위 기획팀장은 "이번 주제는 용역과 공모 등 수개월에 걸친 다양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며 "각종 해양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흥미있고, 인류사적으로 논의를 해 볼만 한 주제'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정기자 redplane@kwangju.co.kr

北선박 홍콩서 억류

안보리 제재결의 후 첫 검문...금지품목 없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 결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 한 척이 홍콩에서 검문받은 뒤 억류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하지만 검문 결과 핵물질이나 무기 등 금지 품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련기사 4면〉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화생방 무기 관련 물질이나 장비·재래식 무기 등을 실은 선박이 북한을 드나들 경우 관련국들이 검색해 금지된 품목의 반입과 반출을 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홍콩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강남1호는 23일 오전 홍콩 해상에서 검사의 검문을 받은 뒤 홍콩 당국에 정

식 억류 조치됐다. 선박은 현재 홍콩 영해상의 웨스턴 1번 정박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명의 선원을 태운 2천355톤 일반 화물선인 강남 1호는 도착 당시 화물칸이 빈 채였고 당초 24일 대만에서 폐광물을 싣고 북한 남포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지난 8월20일 상하이에서 출항한 이 배는 인도네시아를 들렀다 다시 상하이로 되돌아간 뒤 지난 14일 상하이를 떠나 홍콩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억류된 화물선 선장이 대북 제재나 핵실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통상 동남아를 중심으로 항만을 오가는 단순 화물선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광웅 국방사의

내달 외교안보라인 개각

윤광웅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귀국한 후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관직 응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1일을 전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반기문 외교장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윤광웅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교장관 발탁이 유력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동할 경우 외교, 국방 장관과 안보실장 등 정부 외교안보팀의 주요 포스트가 대폭 교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와! 빨간 누에고치다...농업박람회 개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축제인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친환경 생명농업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24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시작했다. 누에 생태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다양한 색깔의 컬러누에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농업박람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유지경기자 jrwi@kwangju.co.kr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축제인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친환경 생명농업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24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시작했다. 누에 생태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다양한 색깔의 컬러누에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농업박람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유지경기자 jrwi@kwangju.co.kr

오늘 해남·진도, 화순, 신안 재보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06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투표가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남·진도와 화순, 신안지역 17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의 경우 해남·진도와 인천 남동을 ▲기초단체장은 화순군과 신안군, 충북 충주시, 경남 창원군 등 모두 9곳에서 재·보선 투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후보간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예상했다. 그러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25일 자정이 넘어서야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세 곳의 선거에 모두 12명의 후보가 출마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 투표율은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결선투표도 오늘

민선 4대 광주시교육감을 뽑는 결선투표가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광주시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3일 1차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득표자가 없어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3천420명이 안순일(61·광주동부교육장) 후보와 윤영월(여·55·광주서부교육장) 후보를 상대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2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 출범

민간위원 14명 위촉...위원장 송재구씨

민간 위촉위원 선임 지연으로 7개월간 구성이 미뤄졌던 제2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2면>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24일 2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 민간위원 14명이 이날 오

후 청와대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2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는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과 별도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추진하며, 위원 임기는



송재구 위원장

이 위촉한 민간위원 14명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송재구 위원이 위원장으로 전남대 인류학과

최 협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민간위원 명단=▲송재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최협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 ▲김성희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용재 조선대 이사장 ▲김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이사 ▲남상규 부국철강(주) 대표이사 ▲박경민 광주YWCA 사무총장 ▲손대현 한양대 최고엔터테인먼트과정 원장 ▲안소연 삼성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광고학부 교수 ▲이석정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혜영 전남대 사학과 교수 ▲황영성 전 조선대 미술대 교수 ▲황지우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특별기고-가나자와 미술관의 기적 ▶5면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꿉니다

예술이 있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미래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굽은아시아는 영재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열정으로 후원하는 등 음악과 미술에 대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기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1. 직원 복지 2. 봉사 활동 3. 협력사 상생경영 4. 고객에 대한 신뢰와 존중 5. 친환경 경영 6. 문화예술 지원 7. 나눔과 사회공헌